

“낭만의 섬 완도서 놀자”

‘플레이 아일랜드 완도’ 30일~10월 9일 청산도 등 4곳서 노을 감상 요트 투어·파충류 체험랜드·별명 투어 등 다채

“매력적인 완도의 섬에서 가을을 만끽하세요.” 완도군이 오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플레이 아일랜드(play island) 완도’를 주제로 ‘2022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완도읍과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등 4군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정완도 가을 섬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더불어 섬의 매력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최근 여행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발굴했다.



2022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플레이 아일랜드 완도’ 포스터.

주요 행사로 완도읍 해조류센터 일원에 마련한 ‘플레이 그라운드(play ground)’에서는 완도읍과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주민들이 완도의 관광 자원 등을 홍보하는 ‘완도 섬 관광청’을 운영한다.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마켓 운영,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요트 투어와 완도수목원에서는 파충류 체험 랜드를 운영한다. 슬로시티인 청산도에서는 ‘느림을 플레이하다’라는 주제로 밤바위 별명 투어, 청산도 클래식의 발견, 향구 포차, 노을 산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길도에서는 ‘풍류를 플레이하다’라는 주제로 달빛 아래 세연정의 정취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세연정을 야간 개장하고, 보길도의 가양주 시음과 고산야행 풍류 문화 공연 등이 열린다.

‘가고 싶은 섬’ 생일도는 이름에 걸맞은 ‘해피버스데이 투미’ 이벤트와 생일도 섬패킹 등이 이뤄진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완도 섬 여행 및 관광이 활성화되고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지역이 활기를 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토요민속여행, 지역 대표 문화관광상품

25년간 국내외 1400여 회 공연 수준 높은 무대에 38만 명 매료 17일 진도 민요 기악곡 등 준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된 진도군에서 올해로 25년째를 맞은 진도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공연 횟수가 900회를 훌쩍 넘어 벌써 1000회 공연을 앞두고 있는 등 대한민국 민속의 보고로 자리매김했다. 해외를 비롯 전국 순회 공연까지 포함하면 공연 횟수는 1400여회가 넘는다. 진도군은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창단 후 지난 1997년 4월 첫 공연을 시작한 진도토요민속여행에 지금까지 38만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진도토요민속여행은 25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며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한국 관광의 별’ 전통 자원 분야에도 선정된 진도토요민속여행은 진도의 멋과 흥, 한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진도의 문화예술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견인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배섬 진도군은 아리랑,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씻김굿, 다시래기 등 국가무형문화재 5종과 진도아리랑, 진도북놀이, 진도만가, 남도잡가, 소포결군농악, 조도뒹배놀이 등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7종을 비롯 토속적인 민요와 민속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오는 17일 오후 2시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판소리 흥보가, 전궁, 진도민요 메들리 기악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관광

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토요민속여행 상설 공연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매년 공연 관람을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진도군을 방문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진도의 대표적인 공연 문화 상품이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kwangju.co.kr

완도경찰, 학폭 예방 등교길 합동캠페인 실시

완도경찰은 지난 13일 완도 약산 중·고등학교에서 완도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육성회 등과 함께 학교폭력·성범죄 예방 및 교통법규 준수·안전운전 생활화를 위한 등교길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캠페인은 신학기기를 맞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홍보용품을 나누어 주고 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 117로 전화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정원균 완도경찰서장은 “오는 11월18일까지 학



교폭력 특별예방활동 기간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등과 유기적 협력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청소년 보호·지원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민선 8기 ‘100대 공약’ 주민 의견 청취

21일까지 군 홈페이지 통해 수렴
무안군이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과 관련한 군민들의 의견을 오는 21일까지 청취한다. 무안군은 앞서 지난달 22일 공약보고회에서 민선8기 무안군정을 이끌 7대분야 100대 공약사항

이 확정했다. 군은 이를 토대로 부서별 검토를 거쳐 소요예산 분석, 시기별 이행사항 등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또 보다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2주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민 의견 수렴 결과 제시된 의견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공약 실천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공약실천계획은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검토를 거친 뒤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무안군에서는 민선 8기 공약이행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이 중 15명은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목포시 ‘목포 음식 명인·명가’ 모집

26~30일 신청
목포시가 목포음식 맛의 경쟁력을 높이고 음식 관광 문화를 선도할 ‘목포음식 명인·명가’를 모집한다. 목포음식 명인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목포음식을 조리하는 자로서 일반시민 50명 이상 추천을 받거나, 각종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목포음식 명가는 해당 음식을 10년 이상 영업을 한 사실이 있고 일반시민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목포음식 명인·명가 신청 기간은 오는 26~30일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업소는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목포시청 관광과

(270-3743)로 방문, 등기우편(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 관광과), 이메일(dmsgp3926@korea.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식품업계·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목포음식 명인·명가 심의위원회’의 1차 서류, 2차 조리 등 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개인과 업소를 최종 명인·명가로 지정한다. 명인·명가로 인정받으면 인증서·인증패 교부, 목포시 관광 홍보물·홈페이지 등재, 대표 축제나 행사 시 음식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등을 지원받는다.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11명의 명인이 목포음식 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면서 “향토음식을 보존·계승하는 것은 물론 목포음식의 세계화를 선도할 목포음식 명인·명가에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땅끝순례문학관 문학토크
해남군 24일~11월 19일
해남 땅끝순례문학관에서 11월까지 차례에 걸쳐 국내 최고의 서정시인들을 초청, 문학 토크를 나누는 시문학콘서트가 열린다. 땅끝순례문학관은 시문학의 고향인 해남이 지닌 문학적 역량과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군민 문학 향유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유명시인들을 초청하는 시문학콘서트를 운영해왔다. 오는 24일 함민복 시인을 시작으로 10월 22일 신용목 시인, 11월 19일 나희덕 시인이 해남을 찾아 독자와 만나를 갖는다. 시인과의 대화와 함께 트루베르, 등걸 등 시노래 전문 공연팀의 공연, 광주 전남 시인들의 시낭송 행사도 예정돼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